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민형배 광주광산구청장

“주민참여 행정·경제 활성화 주력”

“2011년을 ‘광산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민선 5기가 출범한 6개월 남짓 중앙정부·기관 등의 평가·공모에서 32건의 수상과 127억6000여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생활현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민참여의 힘을 토대로 창의적인 행정에 힘을 쏟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주민과 기업,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민간과 공공영역의 장점만을 담은 민관복지 공동망인 ‘투게더 광산’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공익 활동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해 호평을 얻은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 기록을 공개하는 투명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생태친화 황룡강길 조성

축으로 ‘생활현장’과 ‘주민참여’를 제시했다.

구는 올해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국·시비 67억여원을 들여 월봉서원~송산 유원지에 이르는 황룡강길을 생태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꾸미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기반의 축구터울 설립을 비롯해 장덕도서관 설립, 어린이 전용도서관 개관 등도 올해 추진하게 된다.

광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광산구에 모여 있는 것을 감안해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규제해소 시범도시 지정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 등의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 구청장은 “자동차·가전·광산산업 등 광주 주력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매년 2400명씩 오는 2014년까지 1만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59.9%인 지역고용률은 64%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산 지역자활센터’와 오는 2월 개소 예정인 ‘어동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000여명에게 교육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

공무원들과 소통을 위한 공개토크와 유명 강사 초청 강연,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 토크 ‘너나들이’가 추진된다.

민 구청장은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 완공과 우리밀 산업화, 군공항 및 평동 포사격장 이전 등 급격한 사안들이 가져올 변화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요 핵심사업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5년 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 공급

사립대 등록금 인상 3% 억제·유치원비 동결

정부 물가안정대책

정부가 뛰는 물가를 잡으려 미시대책을 총동원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전방위적 물가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에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5년 민간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는 전세대책과 사립대 등록금 3% 미만으로 억제하는 교육물가 대책도 아울러 내놨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려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재개했다.

정부는 먼저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 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 및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이 소 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1브리핑룸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금융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10년이 지나야 분양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만 공공택지를 공급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줄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금융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가운데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 물가 대책은 대학 등록금과

부처별 서민생활안정 대책 주요 내용

주요내용	시행시기
도축장 폐쇄조치 제한적 해제	1분기(1~3월)
해의 곡물회사 설립	5월
지방공공요금 인상시 원가상승요인 공개	1분기
주요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	1월
학원비 공개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 추진	상반기(1~6월)
자가품질 원가절감형 주유소 보급 확대	연중
LPG 유통구조 개선	상반기
스마트폰 요금제 무료 음성통화량 20분 이상 확대	연중
보육시설비·유치원비 안정 유도	1월부터
선택진료 자격 요건 강화로 환자 부담 경감	상반기

(자료 : 각 부처)

학원비, 유치원비에 집중됐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들이 수강료가 아닌 교재비나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막고자 학원 수익자부담경

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학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러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적정수준인지 검토해야”

이대통령 국민경제회의 주재... 정유업체 유가 인하할 지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치솟고 있는 기름 값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정유업체의 유가 인하나 현실화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주제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름값 고공행진과 관련, “주유소 등의 행태가 묘하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들이 책정하고 있는 기름 값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국내 정유사의 유가 책정이 적절하지 여부를 살펴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가격과 관련,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서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비 인상 우려와 관련, 이 대

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분야”라며 “특히 입시 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필수품 하나하나의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 큰 줄기를 잡는데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된 각 부처의 종합 대책이 현장에 잘 적용돼 서민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연방기자 tuim@kwangju.co.kr

두바이유 94달러

국제유가 또 최고치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배럴당 2달러 이상 오르면서 2년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석유공사는 12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일보다 배럴당 2.41달러(2.62%) 오른 94.23달러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격은 2008년 9월26일(배럴당 95.76달러) 이후 2년3개월여 만에 최고가격이다. 연합뉴스

유가·원자재값 상승 악재 많아 성과 미지수

정부 물가 ‘올인’ 약발은

정부가 한국은행이 13일 물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물가 잡기에 나선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인상에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의 원칙적 동결 유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내놓았으나, ‘풍선효과’처럼 올레 상반기에 억제된 물가가 하반기에 부풀어올라 터질 수도 있어 결국 시한

폭탄을 안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연초에 물가 불안 조짐을 보이자마자 선제적으로 강력한 인상 억제 방침을 천명하면서 전방위 사수 태세에 돌입해,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데는 지난해 ‘배추 파동’ 등으로 대표되는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에 따라 6%의 성장에도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은 충분치 않은데다, 올해도 개인 서비스 요금은 물론 유가·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민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요란스럽게 물가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무엇보다 여전히 대외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A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케네디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윌트니스센터
-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 BF1 대연회장, 페덱스

***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스) | www.hotelarthall.co.kr